

발해 건국 초기 官服에 대한 小考

전 현 실* · 강 순 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Official Uniform in the Early Years of the Balhae Era

Hyun-Sil Jeon* · Soon-Che Kang⁺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2006. 9. 1 투고)

ABSTRACT

It seems that Balhae(渤海) had built up its national power through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from the early years of an establishment of a dynasty. And the envoys that were sent with the official duties dressed up the official uniform for a diplomatic courtesy. Accordingly, this study will be considered about the official uniform in the early years of the Balhae era.

The system of the official uniform of Balhae was classified into two form as the starting from 739~742 A.D.

The official uniform of the early years of the Balhae(698~739 A.D.) was based on the costume of the three Kingdoms[三國時代], that is, Yu(襦), Go(袴), Jo-u-gwan(鳥羽冠). These results were available owing to the reasons that the Balhaehad succeeded the culture of Go-gu-ryo(高句麗), which was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Parhae's own culture, and the most of the governing group and the ruling class in Balhaewere the drifting people from Go-gu-ryo. After that, which the 3th King Mun(文王), accepted the Tang's culture positively, assumed the reins of government ascended the throne and the brisk exchange with Tang(唐) by the envoys and Suk-wui(宿衛) were dispatched to Tang, the official uniform of the Balhaewas transformed into the system of Tang. This system was similar to that of Tang in point of using a four colors and the items as Danryeong(團領), Bokdu(幞頭).

Key words: International relationship(교류관계), Succeeding the culture of Go-gu-ryo(고구려 문화의 계승), System of official uniform(관복제도), Costume of the three Kingdoms (삼국시대의 복식), System of Tang(당의 제도)

I. 서론

698년에 건국된 발해는 건국 초기부터 돌궐, 당, 일본, 신라와 정치적 교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처럼 사신을 파견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관복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건국 초기에는 아직 발해의 관복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던 때이므로, 당시 사신의 복식은 제도가 완비된 3대 文王 때의 唐式 관복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 어떠한 형태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초기의 발해 사신들이 착용한 관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과 함께, 이에 대한 것은 건국 초, 발해 내부의 사회·정치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논의를 전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발해 초기(高王~文王代)의 대외관계를 살펴보고,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압 벽화(7세기 말~8세기 초)¹⁾의 한인 사신으로 추측되는 인물과 章懷太子 李賢²⁾ 묘 벽화(706년경)에 묘사된 한인 사신이 착용한 복식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는 곧 벽화에 묘사된 사신들의 복식과 발해 관복과의 관계에 대한 개연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발해 건국 초기의 관복(파견 사신들의 公式服) 형태 규명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발해 貞孝公主 묘 벽화(792년경) 인물의 복식도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발해 복식 제도의 변화 과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발해 건국 초기의 대외관계

발해는 大祚榮을 중심으로 唐 중심의 국제 질서 개편을 거부하면서 독립 국가를 성립하였는데³⁾, 존속시기인 698년부터 926년 약 300년간 돌궐·신라·당·일본과의 사신왕래와 무역을 통하여 국가간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하였다. 3세기에 걸친 교류 시기 중 약 40년간의 건국 초기 발해는 高王代부터 武王을 거쳐 文王代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기

틀을 갖추어 나감과 동시에 영토 확장을 위해 주변국들과 유동적인 대외정세를 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펼쳐나갔다.⁴⁾ 발해의 대외관계는 정치적 외교 활동으로 시작되었고, 점차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면서 대표적인 產物을 주고받는 무역의 형태⁵⁾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1. 돌궐과의 관계

「新唐書」⁶⁾와 「舊唐書」⁷⁾를 통해 살펴보면, 발해는 건국하자마자 곧 돌궐에 사신을 보낼 정도로 외교관계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는 과거 동돌궐이 고구려와 이미 친교 관계를 맺은 바⁸⁾가 있었고, 또 발해 건국 당시 그곳에는 망명해 온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배경에서 大祚榮은 발해 건국 후 바로 첫 사신을 동돌궐에 파견하여 협력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때의 동맹 관계는 단순한 친선 관계는 아니고 국제적 기류로 볼 때 군사 협력 관계에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당시는 발해·동돌궐을 추축으로 하고 契丹·奚 등의 종족을 세력권으로 하는 군사 동맹체를 형성하여 당을 겨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두 나라의 통교가 계속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舊唐書」⁹⁾ 「資治通鑑」¹⁰⁾의 기록을 통해, 후수말갈이 당이나 동돌궐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먼저 발해국에 알렸고 발해가 번번이 후수말갈의 사신을 동돌궐까지 데려다 주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발해와 돌궐의 친교 관계는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었고, 이러한 친교관계는 당과 후수말갈 등, 동돌궐 주변의 여러 민족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2. 신라와의 관계

건국 초 발해는 신라에도 사신을 보냈었는데, 「東文選」¹²⁾과 「東史綱目」¹³⁾의 기록을 보면, 발해가 신라와 첫 접촉을 가졌던 시기는 발해가 건국한지 2년째 되는 700년(高王 天統 2)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고왕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 震國[발해]¹⁴⁾의 성립을 알렸고, 이에 대해 신라 조정은 고왕 대조영에게 제5품 벼슬인 대아찬을 내렸다. 이러한 교류의 계기는 발해의 신라에 대한 적극적인 통교 노력에 의한 것으로, 발해 중심의 대외교류 결과인 것이다.¹⁵⁾ 그러나 돌궐에 사신을 파견했던 시기보다 2년이 뒤졌다는 것은 발해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해 어느 정도 대립의식을 갖고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두 나라의 교류 관계 기록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진하나 「新唐書」 「渤海考」의 기록¹⁷⁾을 통해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新羅道」라는 공식적 통로가 있었다고 전하고, 8세기 당의 지리학자 賈耽(730~805)이 쓴 「古今郡國志」에 “신라의 井泉郡에서 발해의 柵城府까지에 걸쳐 39개의 驛이 있었다”¹⁸⁾는 기록을 통해 두 나라의 교섭이 단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당과의 관계

발해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자주적인 자세로 능란한 대외활동을 벌여 건국과정에서 이미 해, 거란 등 동북방의 여러 종족들과 당을 반대하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건국 초기에 여러 말갈 부족을 통합·복종시키기 위한 전쟁을 벌이는 한편 주도적으로 돌궐에 사신을 파견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북방의 모든 종족들과 함께 당에 공동으로 맞서 나갔다. 특히 돌궐에는 건국하자마자 곧 사신을 보낼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이때의 관계는 군사적 동맹체로 당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발해의 이러한 활발한 대외활동은 당으로 하여금 이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였고, 이에 다급한 입장에 처한 당은 발해와 지속적으로 통교 노력을 꾀하였다.¹⁹⁾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고립 상태에 빠진 당은 발해 및 북방 민족과의 마찰을 피해 회유정책을 실시하는데, 측천무후에 이어 왕위를 계승한 중종(705~710)은 복위 원년인 705년에 侍禦史 張行岌을 보내어²⁰⁾ 대조영과의 친선관계를 도모하고자 하였

고, 대조영 역시 이를 받아들여 둘째 아들인 大門藝를 宿衛로서 당에 파견함으로써 당과의 교류관계가 시작되었다. 이후 발해와 당과는 741년까지 발해에서 25회의 사신을 당에 파견하였다.²¹⁾ 특히 732년 9월 무왕의 命에 의해 발해 장수 張文休가 이끄는 수군(水軍)은 바다를 건너 당 登州를 공격하였는데, 당시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당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발해의 등주 공격 동기는 대조영 고왕의 대를 이은 무왕이 영토 확장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흑수말갈의 당과 결탁한 외교 문제, 내부적으로는 당과 관련하여 동생 대문예와의 갈등이 주요 요인이다. 이 외에 당시의 등주는 新羅館과 渤海館이 설치되었던 물류 요충지로, 발해 조정은 동아시아 교역 중심지로서 등주 지방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해로를 통한 발해의 팽창 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도 갖고 있었던 것이다.²²⁾

이처럼 건국 초, 당에 대해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발해는 당과 일시적으로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였으나 親唐 정책을 실시하였던 文王이 즉위 한 730년대 후반부터는 우호 관계로 전환하였다. 이후 경제적 교류 관계도 활발하여 발해의 특산품인 鷹, 貂鼠, 鯢, 海豹皮, 貂鼠皮 등과 당의 산물인 의복류 [袍, 魚袋, 帶], 견직물[帛, 綵練, 絹]의 품목 교류도 이루어졌다.

4. 일본과의 관계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강조해 온 발해는 그 범위를 일본으로까지 확대하였는데, 「신당서」 「발해고」에 기록²³⁾된 다양한 발해의 교통로 중 「日本道」의 기록이 있어 이 교통로를 통해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27년(武王 9년)에 최초로 寧遠將軍 高仁義, 高齊德 등 24인을 일본에 파견하였고 다음해 728년에 일본 조정과 信物 등을 주고받은 후 4월에 귀국했다.²⁴⁾ 이 사신단에 의해 일본 조정에 전해진 발해 무왕의 國書 내용에는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인 점, 주변국과의 교류를 강조하는 관례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 발해는 당, 신라, 흑수말갈과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발해의 자리

확립을 위한 적극성을 보였다.

이후에도 수차례의 교류 관계가 유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조정은 발해에서 오는 사신을 환영하고, 그들이 귀국할 때에는 送使를 따르게 하는 등 국교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힘썼다.²⁵⁾ 당시 일본도 대외적으로 당·신라와의 관계 정비가 필요했고, 내부적으로는 집권자 후지와라나카마로[藤原仲麻呂]의 집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외 사신의 방문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시점이었다.²⁶⁾

이와 같이 양국 간 교류관계 형성의 계기는 서로의 필요에 의한 정치적인 의도가 농후했으나 739년에 파견된 己珍蒙을 선두로 하는 사신단의 일본을 방문²⁷⁾ 이후에는 교류 목적이 정치적인 관계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한 대외 관계로 그 목적이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발해 초기의 대외 관계를 보면, 발해의 건국 과정에서 고구려 계승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영토 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발해 건국 초반기에는 후반기와 비교했을 때 대외 관계의 교류 횟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돌궐, 신라, 당, 일본 등에 공식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약 300년간 존속했던 발해국의 입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Ⅲ. 발해 초기 관복에 관한 논의

渤海는 건국 초 高王(698~719년), 武王(719~737년)대의 30~40년 동안은 對内外 전쟁과 영토 확장을 위한 사업을 앞세우는 국가 초창기이었던 만큼, 각종 문물제도의 제정이나 시행 등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야 가능하였다. 그러나 건국 초부터 주변국들과의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추진하면서 각 국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던 정황으로 보아, 이 때 파견된 발해의 사신은 파견 국가의 首長을 알현하기 위한 공식적인 복장을 입고 예를 갖추었을 것이다.

발해 복식제도 제정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기간 발해 관직에 관한

기록으로는 대체로 대신, 신, 대두령, 두령 등의 일반적인 칭호와 大將, 郎將, 寧遠將軍 등 무관의 벼슬 이름이나 그 벼슬 등급을 가리키는 칭호만 몇 개 있을 뿐, 원래의 국가 행정기구와 관련된 관칭 이름, 벼슬 이름은 거의 없었는데,²⁸⁾ 이는 곧 발해국 자체의 국가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제도를 제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公服制度의 제정은 王權이 확립되고 기강이 안정되면서 제도의 整備와 分化가 수반된 후에 이루어진다. 공복제도는 곧 관료 제도의 정착에 따른 官服의 制定과 관리의 위계질서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건립되고 그 국가의 제도가 새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문화적·정치적으로 계승관계에 있는 이전 국가의 제도를 계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해도 마찬가지로 건국 초기에는 그들의 문화 계승국인 고구려의 제도를 수용하였을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발해의 건국 시점에서 멸망기까지 발해의 주요 관직에 임하여 주도적으로 발해를 이끌어 갔던 사람들은 고구려인²⁹⁾이었고 발해 유물의 다수가 고구려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³⁰⁾, 당 문화의 본격적인 수용 이전 시기인 발해 초기에는 정치적·문화적으로 발해 지배 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고구려인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했을 것으로 보는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후 3대 文王(737~793)은 文治主義를 표방하고, 개혁정치를 추진하여 국가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2대 武王이 대외 정복을 바탕으로 무력 통치를 행하였던 반면, 그는 내부 통치에 힘을 기울였으며, 그 일환으로 唐文化를 적극 수용하면서 儒學과 佛敎를 진작시키고 文治를 행하였다. 국가 기틀의 확립에는 國內의인 요인뿐만 아니라, 對外的인 요인도 동시에 작용하는데, 上京으로 遷都를 시행한 후에는 보다 활발한 주변 각국과의 교섭을 통하여 대외적인 地位를 향상시킴으로써, 더욱 王權이 강화되고 국력이 신장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3省(政堂省, 宣詔省, 中臺省) 6部(忠部, 仁部, 義部, 智部, 禮部, 信部)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기구가 제정되어 국가의 기틀이 보다 확고해 진다. 따라서 문왕대에 이르

러 官服制度를 포함한 모든 제도가 이루어진 것은 이 시기 왕권 강화와 국가의 기틀이 확고해지는 시대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인 복식제도는 문왕이 즉위한 이듬해인 738년 6월, 당에 사신을 보내 「唐禮」를 필사해 왔다는 기록에 의거해 볼 때, 738년 이후에 제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발해가 당으로부터 여러 문헌을 필사해 온 후 이를 바탕으로 유교적 통치기반이 성립되었을 것이고, 복식제도도 이를 참고로 하였을 것이다.³¹⁾ 그런데 본격적인 국가 체계가 마련된 것은 文王이 舊國에서 顯州로 遷都한 中京顯德府 시기(742~756년)로써, 이 기간에 5京이 설치되면서³²⁾ 5京 15府 62州라는 지방 행정 조직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발해의 복식제도의 제정 시기는 문왕이 738년에 당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禮書를 습득하여 제도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후 중경으로 천도하고 5경의 제도를 확립하여 정권의 안정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739년~742년경으로 생각된다.³³⁾ 또한 「新唐書」 渤海傳³⁴⁾의 기록을 통해 보면, 발해의 복식제도는 품계를 9품으로 나누고, 복색은 각 품계에 따라 '紫·緋·淺緋·綠'의 4색으로 분류되었으며, 여기에 1~5품까지의 계급은 홀과 어대를 착용하는 것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발해는 건당사를 당에 파견하여 숙위의 직책을 맡은 왕자 및 왕족들이나 사신들이 당 조정에 특산물을 증정하면, 이에 대해 당 조정은 관직과 함께 의복류 및 의료들을 주었다.³⁵⁾ 발해인들이 722년부터 당 조정에서 받은 관직은 종5품에서 정3품에 해당하는 위계들로, 이들이 관직과 함께 받은 의복류는 당나라식 관복일 것이고, 이는 후일 발해의 관인 공복을 제도화 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받은 관직 및 관복을 보면, 대체적으로 위계에 따라 '紫袍-金帶-魚袋'나 '緋袍-銀帶-魚袋'의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전술한 「신당서」 발해전의 기록이나 당의 복식 제도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 즉 발해 사신이 당 조정으로부터 받은 의복은 당의 관복제도에 의거하여 수여된 것으로서, 발해의 관복제도는 이를 근거로 하여 정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복식

제도 정착에 기여한 사람들은 발해로 돌아간 사신 및 숙위로 파견되었던 왕족들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발해의 공복제도는 발해의 전반적인 제도가 구체화되는 문왕 3년 이후인 739~742년경에 제정된 것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아직 발해의 제도 자체가 구체적으로 마련되기 이전의 관복은 문왕대의 것과는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즉 발해가 건국된 698년부터 국가의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인 738년경까지의 복식제도는 고구려의 복식문화가 계승된 襦·袴 二部式의 고유복식형태로 본격적인 당문화를 받아들이기 이전인 8세기 전반까지 유지되었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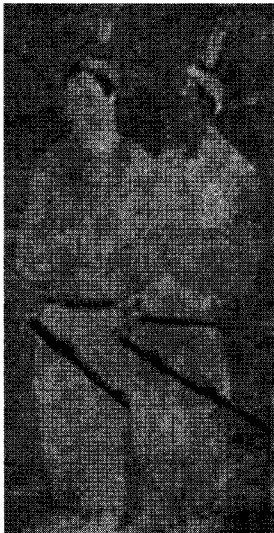
IV. 발해의 초기 관복과 벽화에 묘사된 인물이 착용한 복식과의 관계

발해의 관복 제도와 관련하여 관복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정효공주묘 벽화가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그런데 정효공주묘 벽화(792년경)는 3대 문왕 후기 때의 것이므로 발해 초기 복식제도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해 초기의 관복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로 발해의 건국 시기와 벽화의 조성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벽화(7세기 후반~8세기 초)³⁶⁾와 章懷太子 李賢 묘 벽화(706년경)에 묘사된 한인의 복식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사마르칸트시 아프라시압(Afrasiab) 벽화의 서벽에 묘사되어 있는 2명의 한인 사신을 살펴보면, 조우관에 直領 交衽의 이부 형식 의복을 착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1〉 이들이 착용한 관모는 위쪽을 상투형으로 잡아 맨 듯한 帽部에 쌍각의 입식을 고정시킨 변형된 鳥羽冠 형태이다. 이는 모부의 형태가 고깔형인 고유의 조우관과는 형태와 소재에 변화를 보이는 점이 색 다르나, 다분히 고구려의 조우관에 연계되는 관모로 보인다.³⁷⁾ 襦와 袴로 이루어진 이부식 의복을 보면, 유는 직령 교임에 통수의 소매이고 허리에는 단순한 형태의 혁대를 매고 있으며, 하의로는 고구려의 벽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窮袴의 바지를 입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이현 묘 사신<그림 2>도 아프리카시암 한인 사신과 유사한 고유복식을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관모의 형태는 아프리카시암 사신의 것보다 弁形이 뚜렷하고, 의복은 大袖의 直領衣에 大口袴 차림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두 벽화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품목 구성 및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 또한 발해 초기 공복제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아프리카시암벽화 한인사신 (문명의 루트 실�크로드, p. 77) <그림 2> 李賢 墓 한인사신 (中華五千年文物集刊, p. 146)

그런데 김문자는 신라가 당나라식 관복 채용을 649년에 시행했으나 이때의 품목은 관모가 제외된 상황으로 통일신라 초기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관모류를 그대로 착용했을 것이라는 점, 고신라 고분에서 다량의 鳥羽冠 형태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현 묘의 韓人은 신라인이라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³⁸⁾

그러나 이 인물과 아프리카시암 한인의 모습을 유사시기의 벽화 梁職貢圖(539년 전후)³⁹⁾, 王會圖(649년경)⁴⁰⁾, 蕃客入朝圖(10세기 초)⁴¹⁾(표1 참조)에 묘사된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벽화에 묘사된 인물들은 신라인보다는 고구려인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조우관 형식의 관모는 고구려인들이 이미 착용하고 있었던 것임을 문헌⁴²⁾과 무용총이나 감신총 등의 벽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고, 시기적으로 신라는 7세기 전반(649년)부터 이미 唐式 관복인 團領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7세기 후반 벽화의 인물들의 直領衣와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의 두 벽화 인물과 벽화 조성 시기를 관련지어 살펴보면, 아프리카시암 벽화는 당시 사마르칸트 왕이었던 바흐르만이 당의 도독으로 임명된 시기가 7세기 중반이므로 이 사신은 고구려 보장왕대에 파견된 고구려 사신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에 장회태자묘 벽화에서는 이현이 태자로 추봉된 시기가 675년이므로 고구려 멸망 후 당에서 활동하였던 고구려 유민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고구려인들이 당에 의해 당의 영토로 강제 이주 당했었는데, 장회태자묘의 한인 사신은 당에 있었던 고구려의 왕실 귀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장회태자 묘의 벽화가 조성된 706년은 당과 발해의 친교가 시작된 지 1년 후로써, 이때 발해 왕자였던 대문제가 처음으로 당으로 파견되었음을 주목해 보면, 당시의 복장은 장회태자 묘의 한인과 유사한 차림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변형 조우관에 우리나라 고유복식을 착용한 인물들의 모습은 발해 건국 초에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고 그 제도를 수용한 건국 초기 발해인의 관복 유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이로써 당 복식 문화를 수용하기 전까지의 발해의 관복은 조우관과 유, 고 이부식의 고유복식형태로 8세기 전반까지 유지했을 것으로 보이며, 8세기 중반 문왕이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당 복식 문화를 수용하게 되는 739년~742년경에 이르러 발해의 관복은 고유복식의 초기 형태를 벗어나 당의 관복과 유사한 형태 및 구성으로 변화·정착되었을 것이며, 그 모습은 정효공주묘 벽화(792년경)에 묘사된 인물<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각국 사신의 모습

역화 국가	梁職貢圖 (539년 전후)	王會圖 (649년경)	蕃客入朝圖 (10세기 초)
고구려		 <p>(http://user.chol.com/)</p>	 <p>(王會圖와 蕃客入朝圖에 묘사된 三國使臣의 服飾研究)</p>
백제	 <p>(중국낙양문물명품전, p. 91)</p>	 <p>(http://user.chol.com/)</p>	 <p>(王會圖와 蕃客入朝圖에 묘사된 三國使臣의 服飾研究)</p>
신라		 <p>(http://user.chol.com/)</p>	 <p>(王會圖와 蕃客入朝圖에 묘사된 三國使臣의 服飾研究)</p>



〈그림 3〉 악사 단령
(발해를 찾아서, p. 50)

V. 요약 및 결론

발해는 건국 초부터 주변국가와의 교류를 통하여 자국의 입지를 튼튼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류시 사신을 파견하는 일은 공식적인 일이므로 사신들은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는 복식을 하였을 것이므로 본 연구는 이에 초점을 맞추어 발해 초기의 관복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발해의 관복제도는 새롭게 발해의 여러 제도(통치기구, 군대제도, 계급제도 등)가 정비되었던 739~742년의 기간을 전후하여,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건국 초 698년~739년, 약 40년 기간은 발해 건국 당시 발해의 중심 세력을 형성했던 고구려계 인물을 중심으로 이전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므로 고유복식 형태가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 즉 발해 초기 관복은 삼국시대 고유의 복식 형태인 襦·袴의 二部式 의복에 鳥羽冠 형태의 관모를 착용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암 벽화와 장희태자 이현 묘 한인의 모습은 발해 초기 관복의 모습을 상정해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외국에 파견된 고구려계 인물들로, 고구려 말기의 고유 복식을 착용하고 있어 이러한 작장

형태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발해 초기의 관복 제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이후 문왕이 즉위하고 당으로 파견되었던 사신이나 宿衛를 통해 당과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관복의 형태에 있어서 당 요소의 이입이 시작되어 후반기의 관복은 幘頭, 團領의 구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현재까지의 발해 복식 연구에서 발해 관복은 정효공주 묘 벽화를 중심으로 보여 지는 당나라 복식 문화 요소만을 강조하여 왔다. 이는 다른 시대에 비해 사료, 유물의 부족으로 인한 발해복식 연구의 한계점이겠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발해 건국 초기 관복은 이부식의 고유복식을 근간으로 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간접적 자료를 통한 추론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목적이자 제안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사마르칸트의 왕인 바호르만(650~670)의 唐 도둑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使節團이 참석한 것을 그린 것으로, 제작 연대는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이다. 이 벽화에 묘사된 한인을 고구려계 인물로 보고자 한다.
- 2) 당 고종(649~683)의 6번째 아들이자, 무측천이 친히 낳은 두번째 아들로, 잇따라 노왕과 웅왕으로 봉해졌다. 上元 2년(675) 태자로 봉해졌고, 調露 2년(680) 무측천폐에 의해 평민으로 폐위되고, 巴州로 좌천되었으며, 嗣聖 원년(684) 2월, 巴州에서 사망했다. 이후 중종 神龍 2년(706) 7월, 巴州에서 진릉으로 옮겨와 부장되었고, 景雲 2년(711) 장희태자로 追封되었다.
- 3) 서병국 (2005). 발해제국사. 서해문집, p. 142.
- 4) 김은국 (2005). 발해의 대외교류. 새롭게 본 발해사. 고구려 연구재단, pp. 103-104.
- 5) 전현실, 강순제 (2005). 大唐·對日本과의 交流關係를 통해 본 渤海의 服飾文化 研究-교류시 품목을 중심으로-. 服飾, 55(4), pp. 38-48. 참조.
- 6) 「新唐書」卷第 213 列傳第 144 北狄 渤海： 祚榮…乃建國 自號震國王 遣使交突厥.
- 7) 「舊唐書」列傳第一百四十九 北狄 渤海靺鞨： 祚榮…聖曆中(698~699) 自立爲振國王 遣使通於突厥.
- 8) 서병국 (1990). 渤海·渤海人. 一念, p. 36.
- 9) 「舊唐書」列傳第一百四十九 北狄 渤海靺鞨： 開元十四年(726) 黑水靺鞨遣使來朝 詔以其地爲黑水州 仍置長史 遣使鎮押. 武藝謂其屬曰, 黑水途經我境 始與唐家相通. 舊請突厥吐屯 皆先告我同去. 今不計會 即請漢官 必是與唐家通謀 腹背攻我也.

- 10) 『資治通鑿』: 渤海靺鞨王武藝曰, 黑水入唐 道由我境. 往者是非與唐合謀 腹復背攻我也.
- 11) 서병국 (1990). 위의 책, p. 36, p. 38, p. 42, p. 64.
- 12) 『東文選』卷33 表箋 謝不許北國居上表: 首領乞四羽及大祚榮等…初建邑居 來憑隣援 其酋長大祚榮 始授臣蕃第五品大阿餐之秩 後至先天二年 方受大朝寵命 封爲渤海郡王
- 13) 『東史綱目』第4下 孝昭王 9年條(700): …祚榮則並比羽之衆 恃荒遠乃建國自號震國王 欲憑隣援遣使來附 授以第五品大阿餐之秩
- 14) 공식적으로 渤海의 명칭이 사용된 것은 713년부터이나 여기서는 震國을 포함해 '발해'로 통칭하고자 한다.
- 15) 김은국 (2005). 위의 책, p. 103, p. 105.
- 16) 韓圭哲 (1995). 渤海의 對外關係史-南北國의 形成과 展開. 新書苑, pp. 96-101.
- 17) 『新唐書』卷 219 北狄 渤海傳: 龍原東南渤海, 日本道也. 南海, 新羅道也. 鴨綠, 朝貢道也. 長嶺, 營州道也. 扶餘, 契丹道也
; 『渤海考』地理考: 五京 上京 龍泉府. 中京 顯德府. 東京 龍原府. 南京 南海府. 西京 鴨綠府. 十五府 龍泉府 肅慎古地. 顯德府 肅慎古地在龍泉府南. 龍原府 濊貊古地赤日柵城府爲日本道. 南海府 沃沮古地爲新羅道. 鴨綠府 高句麗古地爲朝貢道…
- 18) 渤海國南海, 鴨綠, 扶餘, 柵城四府, 并是高句麗舊地也. 自新羅井泉郡至柵城府, 凡三十九驛.
- 19) 권영필 (2002). 렌투스 양식의 미술(상). 사계절출판사, p. 147. ; 김성호 (2003). 705년 발해와 당나라 사이의 국교관계 수립. 발해의 국경·문화대외관계. 천지출판, pp. 339-340. ; 김은국 (2005). 위의 책, p. 104.
- 20) 『舊唐書』列傳第一百四十九 北狄 渤海靺鞨: 中宗卽位(神龍 元年, 705) 遣侍禦史張行珪往招慰之 祚榮遣子入侍 將加冊立
- 21) 睿宗 景雲 2年(711): 사신을 보내어 方物을 바침 [발해의 역사, p. 159]
玄宗 開元 元年(713): 사신을 보내 조현함. 大門藝 귀국[발해의 역사, p. 159]
開元 4年(716): 大首領을 당에 보내어 조현함 [발해의 역사, p. 159]
開元 5年(717): 大首領을 당에 보내어 조현함 [발해의 역사, p. 159]
開元 6年(718): 사신을 당에 보내어 조현함 [발해의 역사, p. 159]
『册府元龜』卷975 褒異1: 開元 7年(719)…六月 靺鞨渤海郡王大祚榮卒 贈特進賜物五百段 遣左監率上柱國吳思謙攝臚卿持節充使弔祭
『册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9年(721)…十一月 渤海郡靺鞨大首領…來朝並拜折衝放還蕃
『册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10年(722)…十一月 辛未 渤海遣使其大臣味勃計來朝 竝獻鷹
『册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12年(724)…二月…渤海靺鞨遣使其臣賀作慶…各賜帛五十匹放還蕃
『册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13年(725) 正月…渤海遣大首領烏借芝蒙
『册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14年(726)…十一月…渤海靺鞨王遣其子義信來朝并方物
- 『册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15年(727)…四月…庚申 先是渤海王大武藝遣男利行來朝 竝獻貂鼠
『册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16年(728)…九月 壬寅…渤海靺鞨於夫須計來朝 投果毅放還蕃
『册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17年(729)…二月 渤海靺鞨遣使 獻鷹 是月 渤海靺鞨遣使 獻貂
『册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18年(730)…五月 己酉 渤海靺鞨遣使烏那達利來朝 獻海豹皮五張貂鼠皮三張 瑪瑙盃一 馬三匹 授以果毅 賜帛 放還蕃
『册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19年(731) 二月 渤海靺鞨新並遣使來賀正…十月…渤海靺鞨王遣其大姓取珍等百二十來朝
開元 21年(733): 大承慶을 당에 보내 조현함 [발해의 역사, p. 160]
『册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23年(735)…三月…渤海靺鞨王遣其弟蕃來朝
『册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24年(736) 三月 乙酉 渤海靺鞨王 遣其弟蕃來朝 授太子舍人員外賜帛三十疋放還蕃
『册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二十五年(737) 正月…渤海靺鞨大首領木智蒙來朝…四月渤海遣其臣公伯計來 獻鷹鵞
『册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26年(738) 閏八月 渤海靺鞨遣使 獻豹鼠皮一千張乾文魚一百口
『册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27年(739) 二月 渤海王遣使 獻鷹…十月渤海遣使其臣受福子來謝恩
『册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28年(740)…十月 渤海靺鞨遣使 獻貂鼠皮昆布
『册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29年(741)…二月 渤海靺鞨遣其臣失阿利…四月 渤海靺鞨遣使進鷹及鵞
- 22) 김종복 (2005). 발해·당의 전쟁과 그 의미. 새롭게 본 발해사. 고구려 연구재단, pp. 117-128. ; 김은국 (2005). 위의 책, pp. 109-111.
- 23) 각주 17 참조.
- 24) 『續日本紀』卷10: 聖武天皇神龜五年(727) 春正月…甲寅…謹遣 寧遠將軍郎將一作龍毅都尉高仁義…并附貂皮三百張奉送 土宜雖踐用表獻 芹之誠 皮幣非珍 還慙掩口之誚
- 25) 上田 雄 著, 최봉렬 역 (1994). 발해의 수수께끼. 교보문고, pp. 29-30.
- 26) 酒寄雅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東京: 交創書房, p. 121. ; 구난희 (2005). 발해와 일본의 교류. 새롭게 본 발해사. 고구려 연구재단, p. 138.
- 27) 『續日本紀』卷13: 天平十一年(739)…十二月戊辰 渤海使已珍蒙等 拜朝 上其王啓并方物…并附大蟲皮鼠皮七張豹皮六張人參三十斤蜜三斛進上
- 2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1993). 발해사. 한마당, p. 74.
- 29) 임상선 (1999). 渤海의 支配勢力 研究. 신서원.
- 3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편 (1993). 위의 책, pp. 167-172. ; 서병국 (2005). 위의 책, pp. 202-211, pp. 244-248, pp. 262-266. ; 차만달 (2005). 발해무덤을 통하여 본 발해와 고구려의 계승관계.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 고구려 연구재단, pp. 462-472. ; 한규철 (2005). 발해의 주민 구성. 새롭게 본 발해

- 사. 고구려 연구재단, pp. 38-39.
- 31) 김민지 (2000). 渤海 服飾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25-26.
- 32) 한규철 (1998). 渤海의 西京鴨綠府 研究. 한국고대사 연구, 14, pp. 364-365.
- 33) 김민지는 복식제도의 제정 시기를 738년(文王 2)~762년(文王 26)으로 보고 있다.
- 김민지 (2000). 위의 논문, p. 62.
- 34) 『新唐書』卷219 列傳 第144 北狄 渤海 : 以品爲秩, 三秩以上服紫 牙笏 金魚, 五秩以上服緋, 牙笏, 銀魚, 六秩, 七秩淺緋衣, 八秩綠衣, 皆木笏.
- 35) 발해는 왕자 및 왕족들에게 宿衛의 직책을 맡겨 당으로 파견하거나 사신을 임명하여 당으로 파견하면서 특산물을 증정했고, 이에 대해 당 조정은 官職과 함께 官服 및 衣料들을 주었다. 이들이 받은 관직 및 관복을 보면, 大將軍(3품)-錦袍金魚袋, 左威衛員外將軍(3품)-紫袍金帶魚袋, 渤海將軍(5품)-紫袍金帶, 中郎將(4품)-緋袍銀帶, 左武衛將軍-紫袍金帶, 左武衛大將軍員外置同正(3품)-紫袍金帶, 果毅-紫袍銀帶로, 대체적으로 위계에 따라 紫袍-金帶-魚袋나 緋袍-銀帶-魚袋의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신당서」에 기록된 발해의 복식제도(각주34 참조)와 일치하고 있다.
- 全炫室 (2004). 對外關係를 중심으로 본 渤海 男子 服飾 研究.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84-87.
- 36) 벽화에 그려진 銘文과 『新唐書』에, 사마르칸트는 唐高宗 永徽年間(650~656년)에 당의 都督部가 되었고, 당시 사마르칸트의 왕인 바르흐만은 都督으로 임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新唐書』卷第216 列傳第146 西域下 : 都康者…高宗永徽時, 以其地爲康居都督府, 卽授其王拂呼纒爲都督). 이 벽화는 사마르칸트 왕의 도독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使節團이 참석한 것을 기초로 한 것으로, 제작 연대를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로 보았다.
- 37) 姜淳弟 (1993). 우리 冠帽의 始末에 關한 研究-男子 便服 冠帽을 中心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20-21 참조.
- 38) 2005년 한국복식학회 춘계학술대회(숙명여자대학교) 발표 토론문
- 39) 梁 武帝(재위 502~549)의 즉위 40년을 기념하여 양나라(502~557)에 조공하러 온 30여 개국의 사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 40) 唐 貞觀年間(627~649)인 7세기 초에 총 24개국 26명의 사신이 조공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엽립본이나 엽립탁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41) 총 31국의 외국사신이 묘사되어 있다. 12~13세기경 송 왕실에서 소장하면서 1189년~1249년에 南宋의 광중이나 이중에 의해 표제가 더해진 것으로, 작자는 顯德謙(南唐代, 923~936의 화가)의 것으로 10세기 초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42) 『隨書』卷18 列傳 第46 東夷 高麗 : 人皆皮冠 使人加插烏羽 貴者冠用紫羅 飾以金銀
『新唐書』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 大臣青羅冠 次絳羅 耳兩烏羽